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한옥은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으로, 기와나 초가로 지붕을 만들고 온돌과 마루가 있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거 양식이다. 한옥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한옥은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게 지어진 과학적인 집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온도와 습도가 높고, 겨울에는 날씨가 매우 추운데 한옥은 이러한 기후에 맞게 지어졌다. 한옥에는 마루가 있어 더위를 피할 수 있다. 마루는 땅바닥보다 높은 곳에 널빤지를 깔아 놓은 것으로, 대개 앞쪽이 트여 있고 뒤쪽에는 문이 달려 있어 앞뒤로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늘 선선하다. 또한 한옥에는 온돌을 두어 따뜻한 온돌방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다. 온돌은 부엌에 있는 아궁이에서 불을 때면 따뜻한 기운이 방바닥 전체를 덮히는 난방 장치로, 한 번 뜨겁게 달구어지면 오랫동안 잘 식지 않는다.

둘째, 한옥은 친환경적인 재료로 지은 건강한 집이다. 한옥은 주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나무나 흙 등을 사용하여 만든다. 나무와 흙은 집 안의 습기를 조절해 주고, 공기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시켜 주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든다. 또한 창문에 쓰인 창호지도 나무로 만든 것으로, 햇빛을 그대로 실내로 끌어들이 준다.

셋째, 한옥은 한국적인 미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집으로, 곡선과 직선의 아름다움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지붕이 벽이나 기둥 밖으로 나온 부분을 '처마'라고 하는데 한옥의 처마나 지붕에서는 매끄러운 곡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인 서까래나 방의 구조에서는 직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도심지 개발 등으로 인해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지만 전주나 서울 북촌에 가면 여전히 한옥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곳에는 한옥을 구경하려는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요즘은 친환경 집이라고 하여 한옥을 새로 짓거나 한옥으로 집을 개조하는 경우도 있다.

5 이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

- ①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설명하였다.
- ② 공간의 변화에 따라 설명하였다.
- ③ 해결할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다.
- ④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몇 가지 특징을 늘어놓았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열이 나고 목이 따끔거렸다.  
 둘째 시간은 체육이다. 간이 농구를 한다는 말에 아이들은 과성을 지르며 썰물처럼 운동장으로 빠져나갔고, 선생님은 나에게 말했다.  
 “그럼 교실에 있어라.”  
 순식간에 교실이 텅 비었다. 텅 빈 교실에 혼자 남아 있어 보기는 처음이다.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사방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내 숨소리조차 들리는 듯했다. 지끈거리던 머리가 거짓말처럼 아프지 않았다. 대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상했다.  
 괜히 교실 안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었다.  
 그때 문득 지호의 검은색 점퍼가 눈에 확 들어왔다. 지호는 점퍼를 책상 위에 벗어 놓고 나갔다. 검은색 점퍼! 그건 지호나 마찬가지다. 지호는 늘 검은색 점퍼를 상징처럼 입고 다닌다.  
 어제 점심시간에 지호는 저 검은 점퍼 자락을 휘날리며 나에게 주먹을 날렸다.  
 “짜식! 아무것도 아닌 게 공부 좀 한다고 잘난 척이야?”  
 화장실 가다가 지호의 몸을 조금 스쳤을 뿐이었다. 지호의 매운 주먹과 함께 점퍼 끝에 달린 망가진 지퍼 꼭지가 내 얼굴을 스쳤다. 끝이 날카로운 금속 조각은 내 볼에 빨간 줄을 그었고, 상처는 매우 쓰라렸다. 한 대 맞은 가슴께는 아직도 빠근하다.  
 ‘나쁜 놈!’  
 천천히 일어나 지호의 책상 가까이 다가갔다. 무얼 어찌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그저 막연히 지호를 향한 분노가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다.

9 이 글에서 ‘나’와 갈등을 겪은 인물은 누구인지 쓰세요.

( )

**10** 이 글의 배경과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

- ① 오늘 아침 ‘나’는 몸이 좋지 않았다.
- ② ‘나’는 수업이 끝난 뒤 지호에게 복수하였다.
- ③ ‘나’는 체육 시간에 텅 빈 교실에 혼자 남았다.
- ④ 어제 점심시간에 지호가 ‘나’에게 주먹을 날렸다.

**11** ‘내’가 교실에 혼자 남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       )

- ① 아침부터 아팠기 때문에
- ② 운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 ③ 지호와 마주치기 싫었기 때문에
- ④ 선생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셨기 때문에

**12** 다음을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번호를 쓰세요.

- (1) 지호가 ‘나’를 때렸다. (       )
- (2) ‘나’는 텅 빈 교실에 혼자 남았다. (       )
- (3) ‘나’는 지호의 책상 쪽으로 다가갔다. (       )
- (4) ‘나’는 지호의 검은색 점퍼를 보게 되었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박성룡

풀잎은

떡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가 ‘풀잎’이라고 ㉠그를 부를 때는

우리들의 입속에서는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바람이 부는 날의 풀잎들은

왜 저리 몸을 흔들까요.

소나기가 오는 날의 풀잎들은

왜 저리 또 몸을 통통거릴까요.

그러나 풀잎은

떡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가 ‘풀잎, 풀잎’ 하고 자꾸 부르면,

우리의 몸과 맘도 어느덧

푸른 풀잎이 돼 버리거든요.

**16** 빈칸에 들어갈 이 시의 제목을 찾아 ○표 하세요.

풀잎, 바람, 소나기, 휘파람

**17** ㉠에 쓰인 표현 방법으로 알맞은 것의 기호를 쓰세요. (            )

- ㉠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다.
- ㉡ 두 대상을 ‘~는 ~이다’와 같이 표현하였다.
- ㉢ 두 대상을 ‘~같이, ~처럼’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직접 빗대었다.



18 이 시에서 **보기**와 같이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      )

**보기**

간간하고 짝조름한 미역 냄새

맛을 보는 것처럼 표현(미각) ←      → 냄새를 맡는 것처럼 표현(후각)

- ① 푸른 휘파람 소리
- ② 껍도 아름다운 이름을
- ③ 왜 저리 몸을 흔들까요
- ④ 푸른 풀잎이 돼 버리거든요

19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      )

- ① 생명의 소중함
- ② 비가 그친 뒤의 아름다운 세상
- ③ 헤어진 친구가 보고 싶은 마음
- ④ 풀잎처럼 아름답게 살고 싶은 마음

20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느낌을 써 보세요.

---